

Econ Weekly

Economy Weekly

류진이(2122-9210) jinlee@hi-ib.com
박상현(2122-9196) shpark@hi-ib.com

유가 하락에도 천연가스 가격은 고공행진 중

그림1. 천연가스 가격은 고공행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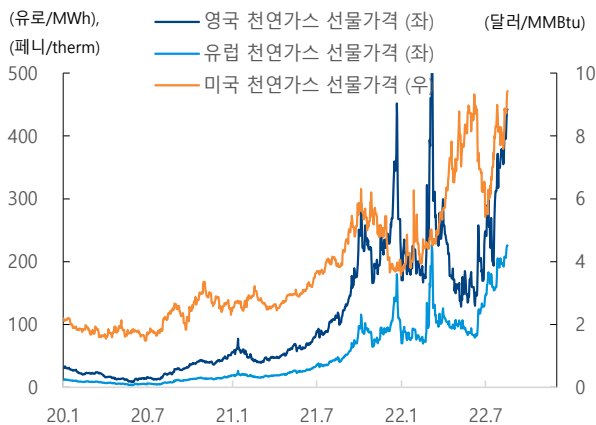


그림2. 하락 반전 추세인 유가



유럽 에너지 대란에 미국 전력가격까지 들쭉이고 있어

최근 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거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16 일 미국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08 년 9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는 WTI 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고 있으나 미국의 유럽향 천연가스 수출이 증가하면서 영국,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세가 미국에까지 전염되고 있다.

미국의 7 월 물가 상승률 둔화를 이끈 가장 큰 요인이 유가 하락에 기인한 가솔린 가격 하락이었던 만큼 유가가 배럴당 80 달러 중반에 이른 지금 물가 피크 아웃 기대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간 수차례 결렬된 바 있어 기대감이 크지는 않지만 이란 핵 합의가 드디어 타결된다면 이란 측 공급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유가는 추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유가 하락의 물가 압력 해소 효과가 다소 상쇄될 수 있다. 7 월말부터 현재까지 유가가 -12.5% 하락하는 와중에도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14.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미국 전력가격 추이는 부담스럽다. 2021 년 기준 미국 전체 전력생산 중 38%는 천연가스가 사용되었다. 미국 전력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고려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재차 하락 전환한다고 해도 전력가격도 함께 하락하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자동차 및 에너지를 제외한 7 월 소매판매액은 전월비 0.7% 상승하며 예상치를 0.3%p 상회했다. 자동차와 가스를 포함한 소매판매는 전월비 0% 성장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7 월 소비 서프라이즈에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소비 여력 확대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 전체 가구 중 약 50%가 난방에 천연가스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가운데 난방비 부담까지 겹친다면 겨울철이 다가올수록 소비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3.미국 전력가격 추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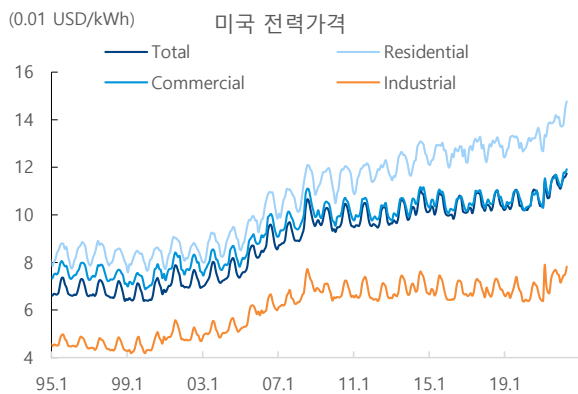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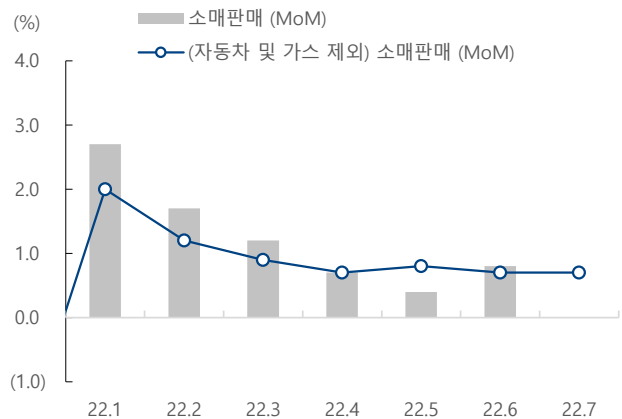


그림4.미국 소매판매 추이



유럽, 가뭄까지 겹치며 에너지 대란 심화 가능성

폭우 피해가 극심했던 서울과 달리 유럽은 심한 가뭄이 문제다.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얹힌 데 얹힌 격으로 가뭄이 에너지 수급 상황을 더욱 타이트하게 만들고 있다. 당사 8월 12일 발간된 정유/화학 Weekly 자료(“2018년 라인강 이슈가 재현될까”)에 따르면 라인강은 유럽 내, 특히 독일 내륙 운송의 80% 내외를 차지한다. 가뭄으로 라인강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유럽 내 물류차질이 심화되는 상황이고, 이에 석유제품 운송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독일의 정부 관계자(President of the Federal Network Agency)는 독일이 목표하는 천연가스 재고 95% 확충을 달성할 경우, 러시아산 공급 없이 대략 2.5 개월간 난방 및 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고 수준은 77%로, 예정보다 2 주 정도 빠르게 재고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 이번 겨울에 유럽의 가스 가격이 현재 대비 60%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천연가스 가격 추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었다. 올해 들어 가스프롬의 독립국가연합 이외 국가로의 가스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6.2% 감소했다. 가스프롬은 지난 6 월 중순부터 설비 문제를 이유로 노르드스트림을 통한 수출량을 40%로, 이후 20%까지 감소시킨 바 있다. 러시아에서 언제든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은 계속해서 천연가스 가격의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다.

에너지 대란, 인플레이션, 지겨운 이슈지만...

전일 발표된 영국 소비자물가는 예상치를 큰 폭 상회하며 40 년 만에 최고치(10.1% YoY)를 기록했다.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아직까지 물가 정점은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 시장 컨센서스이다. 이에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또한 속도 조절 논의를 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에너지 대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올해 내내 이어진 지겨운 이슈지만 아직까지도 전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7 월 미국 소비자물가에서 물가 압력이 다소 완화되는 시그널들이 나타났지만 유럽발 에너지 대란의 영향이 유럽에 한정되지 않고 미국에까지 퍼지고 있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류진이, 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